

# 한국전쟁 70주년... 문화재 복원 정비한다

문화재청, 올 주요 업무계획 발표  
4·19 60주년 관련 문화재 목록화  
문화재 정보 15만건 개방 서비스  
갯벌·연등회, 세계유산 등재 노력



하서 김인후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장성 필암서원.

<문화재청 제공>

한국전쟁 70주년과 4·19 60주년을 맞아 관련 문화재를 발굴하고 목록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한국의 갯벌'과 '연등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도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11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전쟁과 4·19 문화재의 복원 정비다. 전쟁 관련 기록물 등 200여 건을 목록화하고 잠정유사 유물 등 10여 건 문화재를 등록·지정할 예정이다. 4·19 문화재 목록화는 관련 전단과 참여자 문서 등이 대상이며, 학술행사와 인문경좌도 진행해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역사성 회복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한국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DMZ 남측지역 실태조사와 잠정목록 등재도 추진한다.

올해는 훼손·멸실 우려가 있는 역사문화자원(비지정문화재)을 전수 조사해 보호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근현대문화유산, 자연유산수준문화재, 비지정문화재의 관리체계를 법제화해 문화유산의 미래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역량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수리업 등록 요건을 완화해 시장경쟁력 제고도 노릴 예정이다.

무엇보다 문화재구역 위치, 범위, 정보 등 문화재공간정보 원본 자료 15만 건을 전면 개방해 생활 밀착형 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문화유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주요 계획이다.

문화재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기업(주민관광해설, 전통기술, 전통식품 등)의 창업 지원 유형을 개발하고 문화재 돌봄 인력과 안전경비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무형문화재 이수자 대상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70명을 신규 배치하는 등 지속 가능한 문화재형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둔다.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 활용 프로그램도 육성한다. 고택·종가집 활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등 기존의 특색 있는 사업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의 서원'을 활용한 세계유산추진도 선 보인다.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계획을 위해 우수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문화재교육지원 센터(2021년 개소 예정) 공모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유산 교육도 지난해 5700명에서 올해 7000명까지 확대한다.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공동 활용 기준도 강화해 문화유산 향유 기반을 조성한다. 문화재

가상체험 콘텐츠와 유·무형의 통합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2022년까지 한양도성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상공간 복원도 진행한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전수교육조교 대우를 개선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한다. 보유자와 보유단체만 보유한 전수교육 권한을 전수교육조교에게도 부여하고 각지에 있는 전수교육관 지원을 확대한다.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가치 확산도 중점 추진 과제다. 올해 안으로 '한국의 갯벌'과 '연등회'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한다. 7월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12월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탈춤'은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를 이달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문화재 국제교류도 다각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유산 교류 등 아태지역 역내 국가 간 상호발전을 위한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외문화재 전락적 환수를 위해 방식을 다각화하고, 국외부동산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성인 연간 6.1권... 점점 더 안읽는 종이책

문광부 '2019 국민독서 실태조사'  
초·중·고생 32.4권... 전자책은 증가

우리나라 성인 독서량은 감소했지만 학생들 독서량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공개한 '2019년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들의 종이책 독서량은 6.1권으로 2017년에 비해 2.2권, 독서율은 7.8%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초·중·고 학생들의 종이책 연간 독서량은 32.4권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3.8권 증가했다. 반면 연간 독서율은 2017년에 비해 1.0%P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학생 모두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성인은 16.5%, 학생은 37.2%포인트로 2017년보다 각각 2.4%포인트, 7.4%포인트 증가하는 등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30대 중심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돼 젊은층의 전자책 선호도를 반영했다.

이번에 처음 조사한 오디오북 독서율은 성인 3.5%, 학생 평균 18.7%(초 30.9%, 중 11.6%, 고

13.9%)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년 사이 연령대별 독서율(종이책+전자책)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대학생은 2.7%포인트, 30대는 2.0%포인트 증가했지만 50대에서 8.7%포인트, 60대 이상에서 15.8%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책을 읽기 어려운 이유로 성인은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29.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2017년까지 '시간이 없어서'를 밀어낸 것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매체 이용 다변화가 독서율 하락의 주 원인으로 드러났다.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7.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17년도의 응답과 동일하게 조사됐다.

독서량은 1년간 읽은 일반도서(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 제외) 권수를, 독서율은 1년간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을 가리킨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과 초등 4~6학년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영하 작가의 검은책방정책방 사인회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문화재단 공연단체 모집

'월요콘서트'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 등 16~20일 접수

광주문화재단이 올해 열리는 '월요콘서트'와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 출연단체를 모집한다.

월요콘서트는 올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상반기, 하반기 각각 베토벤과 모차르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오는 5월 11일~11월 16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리며 이번 공모에서는 재단 자체 기획공연 10회를 제외한 10개 공연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공연팀에게는 출연료 165만원을 지원한다.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은 문화가 있는 날 지역 예술인의 다양한 무대로 꾸며진다. 4~11월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재즈 음악과 월드뮤직공연 장르로 한정한다. 8개 단체



지난해 열린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 공연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를 모집하며 출연료 1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팀원 4명 이상의 광주지역 활동 예술단체와 관련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신청은 광주문화재단 혹은 빛고을시민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를 내려받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 단체는 오는 27일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코로나19' 발생부터 소멸까지 기록 남긴다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정보 수집 웹 아카이브 구축

'코로나' 발생부터 소멸까지 모든 것 기록으로 남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모든 기록이 수집·보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발생부터 감염 확산,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다룬 정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웹 문서, 동영상 같은 웹 자료 등이 수집된다.

국립중앙도서관(중앙도서관)은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디지털 정보자원을 수집해 기록으로 남기는 웹 아카이브 문을 연다고 밝혔다.

관련 웹정보자원은 오아시스(www.oasis.go.kr) '재난 아카이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코로나19가 현재 진행 중이므로 웹 정보자원은 16일부터 종료 시까지 업로드된다.

오아시스(OASIS,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는 중앙도서관이 2004년부터 온라인 디지털 정보자원을 수집·보존하는 사업이다. 특히 '재난 아카이브'는 오아시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메르스 유행, 강원도 산불 등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 37건에 대한 1만7875건의 기록을 담았다.

또한 중앙도서관은 2008년부터 회원기관으로 참여하는 국제인터넷보존컨소시엄(IIPC)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가별 웹 아카이브 컬렉션 구축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IIPC는 미국의 회도서관 등 45개국 57개 주요 기관이 가입된 국제적인 인터넷 웹 자원 보존 협의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